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 年 8 月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학위논문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공 요 상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udents entrusted to vocational institute

2007年 8 月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공 요 상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강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年 4 月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공 요 상

공요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광 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양 원 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인

2007 年 6 月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목차	i
표목차	iii
Abstract	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의 개념	5
2. 청소년의 발달특성	6
제2절. 진로지도의 이론적 고찰	15
1. 진로지도의 정의	15
2.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인식변화	16
3. 진로교육의 현실과 정부시책	19
4. 청소년의 진로교육의 방향	22
제3절. 직업교육훈련의 이론적 배경	24
1. 직업교육훈련의 특성	24
2. 직업교육훈련 기관현황	27

제3장. 연구의 방법 34

제1절. 연구의 방법 및 조사대상 34

 1. 연구의 방법 34

 2. 조사 대상..... 34

 3. 조사 방법 35

 4.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용 설문지 주요내용 35

제4장. 결과 분석 36

제1절. 결과 분석 36

제5장. 결 론 50

참고문헌 52

부록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용 설문지> 53

표 목 차

<표 1>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률	19
<표 2>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20
<표 3>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분야	28
<표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34
<표 5>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의 학습 능력	36
<표 6> 학생의 가족 사항	37
<표 7> 가정의 생활수준	38
<표 8> 부모님이 학생에게 거는 기대	39
<표 9> 학생의 1일 흡연 정도	40
<표 10> 가장 고민하는 문제	41
<표 11> 교체중인 이성 친구 유무	42
<표 12> 성 경험	43
<표 12-1> 성 경험 정도	43
<표 13> 자살 충동	44
<표 13-1>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44
<표 14> 학생의 음주 정도	45
<표 15> 유해약물 흡입 유무	46
<표 16> 직업전문학교 선택 동기	47
<표 17>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현재의 느낌	48
<표 18> 직업전문학교에 학생이 기대하는 정도	49

ABSTRACT

A Study on the students entrusted to vocational institute

Yo-Sang Kong

Advisor: Prof. Kang-Hyeon Rhee Ph.D.

Major in Electricity,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t the teenagers days, compared with their rapid physical growth, their ideas are still immature, so it is a burden that many juvenile have to acclimate themselves to a new environment before finding what is their sense of value and what is the goal of life, for that reason lots of juvenile problems have been is sharp rise these days

To the point of study, as we research and analyze on th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al system which is carried out the teenagers who do not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and what is the problems of students who is studying at the job educational school, we would like to find what is the best solution how to teach these juvenile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변화로 직업의 형태가 점점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산업의 각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장래의 직업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개성과 적성, 흥미, 욕구, 환경에 알맞은 직업을 계획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직업세계에서 보람되고 알찬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¹⁾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직업인을 육성하고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며 기능을 연마하여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은, 1990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고교 교육체제 개혁'에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 조치와 더불어 시작 되었고, 이 후 1996년 교육개혁 방안(Ⅱ) 중 '신 직업교육 체제 수립'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훈련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운영되어 왔다.²⁾ 그간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을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 직업과정이나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직업 및 산업학교,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각종 사설학원 및 인정 직업 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형태로 직업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직업과정 운영 자체가 학교 내의 진학위주의 교육풍토, 직업반 학생들의 열등의식, 학급편성, 시설, 교사 등의 문제로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 문교부(1975),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교육인적자원부(2002),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비진학 학생 수에 있어서도 1995년을 정점으로 (106,269명)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 50,808명에 이르고 있는데,³⁾ 이러한 감소추세는 자연적 학생 수 감소, 대학 입시정책, 중등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 등으로 계속될 전망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의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또한 내적인 문제점으로 매년 중도 탈락률은 동일한 목적의 다른 교육훈련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격증 취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업과정 수료 후 취업보다는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과정 희망자 감소와 적성 및 능력,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선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 등이 산재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 없이 이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근본적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진학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계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대학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직업준비교육으로써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적 인력수급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탐색 및 직업적응 교육을 시행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착실히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 직업인으로서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는 직업과정의 활성화는 더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다 많은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과 교육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 직업전문학교인 (재)H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여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적합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2.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매년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 일정한 직업능력을 갖추어 졸업 후 건실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적어도 대학진학 청소년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현재 비진학 청소년들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과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직업관,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들에 대하여 제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진로지도 방법을 개선 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과 교육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 중 노동부 평가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재)H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여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적합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의 특징, 진로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알아보고, 직업전문학교 위탁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문지를 분석하여 올바른 진로지도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범위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직업전문학교인 (재)H직업전문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설문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결론은 그 내용에 국한하였다.

셋째,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이므로 타 일반계 고등학생이나 전문계 고등학생과의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며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의식분석 및 직업관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 논문을 참작하여 연구자가 자작 한 것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 객관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말은 청년과 소년을 합해 놓은 것으로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간다.’와 같은 정체감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있다. 이것은 모두 청소년이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른들도 청소년기를 발달과정에서의 과도기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영어의 ‘adolescent’도 라틴어의 ‘(어른)으로 성장하다’의 뜻을 가진 ‘아직 미성숙한’, ‘불안정한’의 의미이며 신체적·생리적인 관점에서도 청소년기는 제2차 성장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시작하여 신체적 성숙이 끝나는 성인기 전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공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19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청소년기에 대한 정확한 연령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 16~18세까지를 청소년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경에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이유가 이루어지면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만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제2의 반항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아직 주변인에 머물러 있는 특징적인 발달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신체·심리변화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발달은 점차 성인과 비슷해가

4) 이종복외 5인(1998), 현대 청소년복지론

5) 통계청(2006), 청소년통계

지만 심리적 발달은 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을 스스로를 책임지기 어려운 연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청소년의 발달특성

청소년 발달특성을 신체적 발달, 인지발달, 자아발달, 정서발달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청소년기가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라 하지만, 청소년기 또한 다른 발달 단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이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청소년의 신체적 발육은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생리적 과정과 사회화 과정 사이의 격차현상이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청소년기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얻거나 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를 확보할 때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시작을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다분히 생리적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의 끝남은 결혼이나 취업 같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기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등장하는 나이는 늦어지므로 자연히 청소년기는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징은 한마디로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성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것인데 비해 청소년기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특성은 성장발육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 조건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역할 변화와 연관된다. 청소년은 부모에 의존, 부모로부터의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과 반항사이를 왕래하며 아이로 취급하면 화를 내지만 반대로 어른 취급을 하면 불안해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청소년은 누구나 가족의 감독에서 벗어나 독립된 하나의 인격이 되려하는 심리적 작용과 자아정체감 확립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현대사회의 특성 중 청소년의 생활과 특히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가족제도와 교육제도이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장소가 가정과 학교로 분화되고, 또 어른들에게는 일의 장소가 가정과 직장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세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기능과 어른들의 일하는 장소가 가정에서 분화되어 나갔다는 사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농경사회에 비해 아버지의 가업이 자식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이 어른과 아이 세계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⁶⁾

가.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청소년기 중 초기단계인 사춘기에 들어서면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져 제2의 성장 급 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의 청소년지표에 따르면 신장과 체중의 급등이 남아의 경우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여아는 9세에서 11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신체적 발육 속도가 빨라지는데 사춘기(보통 2~3년 간 지속)가 끝난 후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앞서게 된다. 신체적 급등이 일어나는 시기는 해마다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속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편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 급등현상과 함께 내분비선(endocrine glands)도 급격한 성장을 하여 성적 발육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춘기가 되면 제2차 성징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아의 경우 유방의 발육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음모가 자라기 시작하며, 겨드랑이의 체모와 초경(menarche)이 있게 된다. 초경 후 1년 반이 지나면 보통 배란이 생기는데 이후부터 임신도 가능해진다.

한편 남아의 경우 고환의 발육이 먼저 시작되고 음모가 자라며 몽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 목소리 변화(변성기)와 체모가 나타난다. 사춘기 성장은 대체로 2년 동안 계속되며 난자와 정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되면 성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성적 성숙

6) 이종복외 5인(1998), 현대 청소년복지론

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여아는 지방질이 발달하여 몸의 선이 점점 곡선을 띠게 되고 전형적인 여성의 체형을 갖추게 되며, 남아의 경우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여 어깨가 벌어지고 역삼각형의 체격을 갖추게 된다.

사춘기의 신체적·성적 발육이 진행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형성해 간다. 이것을 신체상(body image)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갖는 자신의 신체상은 청소년들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⁷⁾

신체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열등감을 가질 경우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올수 있고, 신체발달의 부조화에 의해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정보,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

나. 청소년의 인지발달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아동기 때와 질적으로 다르다. 청소년기 동안 신체적으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듯이 인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인지(cognition)란 한마디로 정신 활동(mental life)을 의미하며,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능(intelligence)이란 개념과 혼용하여 많이 쓰인다.⁸⁾

인간의 정신능력을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으로 구분하여, 유동성 지능은 14~17세까지 절정에 이르렀다가 연령 증가와 함께 쇠퇴하는 반면, 결정성 지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결정성 지능은 청소년기 동안 그 변동의 폭이 크데, 이때의 변화 정도에 따라 성인기의 지적 능력이나 삶의 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기능·인지발달의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달단계별로 상이한 논리적 조작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때 청소년기가 되면 사고의 형식적 조작(formal operation)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아동기 사고와 구별하였다.

7)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8) 권이중(1983), 사회교육과 청소년 지도

사고의 형식적 조작이란 첫째,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 현상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하나하나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hypothesis-deductive reasoning)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둘째, 명제적 사고(propositional thinking)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형식적 조작은 평균적으로 11~12세가 되어야 가능해지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삶을 엮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사고의 형식적 조작이 가능해 지면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모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과학적 추리를 할 수 있으며 ‘사고(思考)에 대해 사고(思考)하는’ 초인지 능력(meta cognition)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자기 성찰(self-examination)을 하게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고 뿌리에 관심을 가지며, 일기나 상상놀이 친구(imaginary playmate)와 같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 사고능력은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 즉 가능성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미래의 삶이나 닥쳐올 일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근심하고 여러 가지 공상에 빠져 혼란스럽고도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실을 모두 부정하는 급진적 개혁 혹은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다. 이때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절망하며, 급기야 ‘삶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 특유의 사회인지적 특성인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 나타나게 되는데, Elkind는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을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와 상상의 청중(imaginary audience)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개인적 우화란 자신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

9) 오치선(1999), 청소년 지도학

들의 우정이나 사랑이 결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늘 타인의 관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즉 다른 사람들은 늘 나를 주시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를 상상의 청중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상상의 청중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탄다. 그러므로 상상의 청중의식이 너무 지나칠 경우 늘 남의 눈을 의식하므로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다. 자아 발달

자아를 찾고 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인으로서 성숙된 인격과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 발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자아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회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게 되며, 이 탐색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알게 되는데, 자신의 가능성이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거나 자신의 한계가 너무 클 경우 절망하고 방황하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정체감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현재의 자기’를 잘 수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이라고 하였다.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자신의 실체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실체적 자아 : actual self) 청소년들은 ‘이상적 자아(ideal self)’를 꿈꾸게 된다. 이상적 자아를 향해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려 시도하고, 또 그것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간에 거리가 너무 멀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체념과 포기를 하게 만든다. 또한 이상적 자아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거짓 자아(false self)’를 형성하게 된다. 거짓 자아란 현재의 자기 자

신을 감추고, 이상적 자아를 마치 실제의 자신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거나,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성격의 인물을 몹시 갈망할 때 거짓 자아를 나타낼 수 있다.¹⁰⁾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갖는데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비교적 안정되고 통합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닌 특성이나 존재에 대해 가치와 긍지를 느끼는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긍지를 느끼지 못하므로 심할 경우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자아 존중감은 주변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격려가 있을 때 증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신뢰나 애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낮아진다. 특히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은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의 지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라. 정서 발달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는 순수한 반면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성적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 인지와 자아의식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기존 세대에 대한 거부감 및 아동과 성인 사이의 역할 부재에서 오는 혼돈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분비선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발달을 이끄는 대표적인 것은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들 호르몬의 양은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전형적인 청소년기 정서를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청소년들은 순수하고 쉽게 동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감동을 잘 받으며, 노래가사에도 쉽게 눈물을 흘린다.
- ②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아동기에는 사건 중심이었으나 청소년기가 되면 대인관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이라든가, 친구와의 문제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청소년들의 정서를 대부분 지배한다.

10)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3), 청소년 복지론

③ 정서표현이 내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동기 정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마음속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형성된 정서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한번 형성된 친구나 대중스타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④ 청소년들의 정서는 정조(情操, sentiment)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조란 고도로 분화되고 승화된 정서표현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글이나 노래 혹은 그림 등 세련되고 지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⑤ 청소년기가 되면 신경질이 많아지고 조급해지며 잘 흥분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안에서 청소년들은 화를 잘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⑥ 청소년들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며, 마음을 졸이고 얼굴을 잘 붉힌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이에 따른 긴장과 불안 및 좌절의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격적 성향을 띠 가능성은 매우 높다.¹¹⁾

마. 청소년의 문화

과거나 현재 모두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조역이었다. 청소년집단은 아동기와 달리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또래 집단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동년배 집단들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의 생활양식은 부모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는 이들의 아래관계나 이들이 보이는 하위 문화적 특성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부모세대들의 경험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명 현재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삶의 양식이나 태도는 이전세대와 구분된다. 공동체적인 삶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현실 속에서 재미있게 자신을 즐기는

11) 김미라(2002),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은 정치, 사회에도 관심이 없다. 스포츠, 만화, 연예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노력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경험하였고. 또 한편으로 고급 소비문화를 누리는 집단이다. 이들의 또래관계는 이런 생활경험과 직접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먼저 외출했다 돌아오면 컴퓨터부터 켜고 전자우편이 왔나 먼저 확인하다. 물론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길거리에서 이야기 하며 걸어가는 장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개성화, 감각화, 자기표현 욕구로 표현되는 이들 세대의 정체성은 삶의 양식에서는 왕성한 구매 욕구와 소비욕으로 나타난다. 서구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바로 이들이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청소년 또래 문화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상업적 문화 활동과 유행의 추종 속에서 자신의 개성적인 모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성향의 소비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에 비해서도 ‘소비’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절약의 규범 속에 성장하면서 막상 돈을 벌어도 쓸 줄 모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들에게는 소비에 대한 죄의식이 부재하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생산 중심주의에서 소비 중심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들은 8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영상매체의 확산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컬러TV와 비디오, 전자게임과 컴퓨터 등의 새로운 영상매체에 익숙해있다. 이는 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리성에 약한 대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고 싫은가?’에 그들의 기준이 있다. 청소년들을 컴퓨터 세대, 사이버 세대라고 일컫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친구,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현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경제 성장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과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서 우리는 또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잃은 것이 있다. 이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다. 특히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 관심 밖의 일로 여겨 옴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적문란, 퇴폐, 향락문화, 물질만능주의, 청소년 비행과 일탈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의 원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은 경쟁의 승리를 최고의 가치 창출로 여기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되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현실은 청소년들의 이기주의, 무절제, 난폭화, 의타주의의 심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거의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색해 왔었다.

가정, 학교 및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청소년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장소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활동의 재창조를 위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문제가 정적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세대 간 차이를 과거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다. 가부장의 권위 역시 많은 부분이 퇴화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과 지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자녀지도에 대한 기능 상실과 같은 외적 요인과 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엄청난 교육열, 심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상당한 압박감, 좌절, 불안, 불만, 갈등 등을 경험하고 있다.

제2절. 진로지도의 이론적 고찰

1. 진로지도의 정의

인생살이의 전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또는 직업지도를 탈피하여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보다 폭넓게 공헌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이후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또는 진로지도(career guidance)란 말이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또는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란 말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직업적 요구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직업교육 또는 직업지도는 일반교양 교육의 일부로서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고조되게 되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선택 문제이며, 일생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란 개인의 직업생활 그리고 퇴직 후 생활까지를 포함한 인생 전반에 걸친 주요 경력의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경력의 과정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퇴직자로서 살아가는 가족생활, 오락생활, 시민생활 등 인생의 주요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직업적 진로의 결정문제는 사실상 이러한 여타의 모든 문제를 관련시키지 않고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로교육에서도 이러한 모든 인생문제를 포괄하여 인생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 소질, 태도, 가치관을 계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 교육의 전체 프로그램을 바꾸어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통합된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인식 변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시대이고 평생학습 사회이다. 직업 세계도 더욱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흥미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생산적인 직업인으로서 일을 수행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 교육의 방향으로서 대두된 진로교육을 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학교 교육이 개인의 진로탐색과 준비, 그리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7차 교육 과정은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진로 교육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꾀하기 위한 진로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의 양성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흔히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은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세계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든지,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는 식의 암시도 문제이다. 이는 개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다거나 개인이 그에 맞는 능력만 갖추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진로가 꼭 흥미, 적성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은 경험하고 있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가변성, 돌발 변수가 삶의 과정에 엄연히 존재한다. 또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고 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개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맞는 직업의 폭도 넓고 성공적인 직업 수행 유형도 다양하다. 게다가 급격한 사회변화는 여러 번의 직업 전환을 요구한다.

진로교육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매우중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가

지게 되는 직업은 이후에 가지게 되는 직업에 고정되거나, 대학 진학 시 학과 선택은 장래의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여러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육 문제들은 올바른 진로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람직한 진로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아를 실현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의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디지털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기의 진로교육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진로교육이며 학교는 이러한 진로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합리적으로 구현되는 교육 현장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다.

가. 개인적인 측면의 중요성

최근의 다양한 언론보도와 신조어들(이태백, 프리트족, 니트족, 캥거루족 등)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성과 미래세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 ‘평생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는 기존 인력구조의 재편과 직업을 영위하는 개인들에게 현재와는 다른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제 더 이상 평생직장이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제는 자신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색이 현대사회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앞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국가·사회적인 측면의 중요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즉 세계화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없어진 무한경쟁 체제의 돌입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가는 개인에게 직업과 진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국가 인적자원의 질 제고에 두고 이를 위해 국민 각 개인의 생애진로개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통합 진로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하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생산·수집·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정보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전달체제를 갖추고 있다.

다. 학부모 측면의 중요성

학부모측면에서 자녀에게 일생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가정에서 애정 어린 진로지도와 상담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며 자기를 바르게 알도록 인식시켜야한다. 한편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녀의 심리적 특성, 흥미, 능력, 적성,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로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일의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한 자아실현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지나친 기대나 편견을 버려야하며 ‘건전한 가치관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따뜻한 지도가 필요하다.

3. 진로교육의 현실과 정부의 시책

가. 학교 진로교육의 현실

(1).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졸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길만이 출세하는 길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 적성, 흥미, 취미를 고려해서 전공을 정하기보다는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표 1>에서 살펴보면 2006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87.5%이며 전문계 진학률은 68.6%로 나타났다.

<표 1>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률 (단위:명)

연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진학률(%)
인문계	1995	390,520	284,251	27,892	72.8
	2000	473,665	397,641	11,729	83.9
	2006	405,445	354,647	4,967	87.5
전문계	1995	259,133	49,699	190,148	19.2
	2000	291,047	122,170	149,543	42.0
	2006	162,600	111,601	42,151	68.6

자료 : 교육통계 편람 (2006)

(2). 부모 위주의 진로결정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이나 성격,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려하고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다.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어머니라는 응답이 (60.7%)로 다음은 아버지(39.6%), 학교선생님(33.6%), 친구(3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응답이 높아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님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순위 구분	1	2	3	4	5	비고
대상	어머니	아버지	학교선생님	친구, 선배	학원/과외선생님	복수응답
비율	60.7%	39.6%	33.6%	31.6%	8.7%	

자료 : 한국코카콜라& 코리아리서치 (2005)

(3).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주1회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과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워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입시위주의 학습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특히 가정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4). 왜곡된 직업의식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출세 지향적인 부정적 가치관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을 갖는 목적으로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학교에서 직업지도는 일 자체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여 일을 선택한 동기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과 직업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편견이 심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기보다는 인기 학과나 인기 직업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5).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부족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일, 즉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능률적으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사회변화의 빠른 속도에 비해 학교 내 진로교육 담당자의 새로운 정보 획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수기회나 관심 있는 교사의 연구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¹²⁾

12) 서울특별시교육청(2006), 2006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교재 진로교육 내실화·활성화

4. 청소년의 진로교육의 방향

가. 사회적 차원의 진로교육

첫째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선도해야 할 문제로 가정에 그 의무를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 자질에 맞는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생각에 심사숙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 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이나 인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회는 방황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그들의 정서적 불안 상태를 해소 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시기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이며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방황하며,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방황 시기의 청소년 들은 쉽게 이탈하기 쉬우며 학교의 주변으로 밀려나서 그 주위를 맴돌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 적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 시켜 주는 것이 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본다.

나. 직업전문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상담교사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담교사라 해서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서 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상담교사란 학생들의 개개인의 고민과 진로를 상담해 주며 더 나아가 진로, 직업 문제 까지도 상담할 수 있는 교사를 말한다. 상담교사가 있으면 학생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학교를 맴도는 학생들도 잘 지도 하고 상담하여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담교사를 직업전문학교에 많은 인원을 충원하여 교사 당 그 학생 수가 적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만 원만하고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이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인용구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의 교육이 매우 부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비진학 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을 많이 들었으나 요즘은 가정불화가 더욱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가정의 부모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돌보아야 하며 이차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정 내에서의 진로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요즘의 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가정 내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절. 직업교육훈련의 이론적 배경

1. 직업교육훈련의 특성

가.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및 고용구조가 변모되면서 기능인력 수요가 급등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여 1967년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 공포 하였으며 정부에서 산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 공포 시행하였으며 1995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어 1999년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으로 23년간 운용되어오던 직업교육훈련의 무체가 폐지되어 민간훈련참여 확대로 민간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로 시행하였으며, 2004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 산업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제 시대에는 생산직 종사자의 기술교육에 해당하는 말로서 기능자 양성, 도제 양성, 견습생 제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¹³⁾ 해방 후 우리나라의 법률이 정비되면서 1953년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기능자 양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직업훈련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년 12월)에서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직업훈련법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서는 종래의 개념을 계승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

13) 한국직업능력 개발원(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의 회고와 전망

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책방향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첫째,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둘째, 민간 자율성 확대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셋째, 공공훈련의 효율성제고 및 내실화를 추구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등을 포함한 우선선정직종훈련 2007년도 승인인원을 보면 13개분야 91개 훈련직종, 132개 기관 24,774명이 승인 되었다.¹⁴⁾

나.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개요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인력이 부족하여 훈련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장에서 자율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직종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게 우대 지원하여 제조업체 등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고용보험법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및 시행령 제34조의 2(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사업주 외의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훈련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관장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1960~1970년대까지는 실업교육 또는 산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인력, 특히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1980년대부터는 학교교육체제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념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학생 중심 직업교육과 근로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직업교육훈련으로 통칭하여 개념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목적과 담당

14) 노동부분부(2007), 2007년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결과

기관이 구분되어 있다. 직업교육은 산업교육진흥법과 기타 기업교육 관련법에 규정된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수준의 직업교육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을 포함한다.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인력 육성방향과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훈련제도의 구분으로써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0년대 경제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산업인력양성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정식 도입되었다. 정보화와 국제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되고,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자로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느냐에 따라 기준훈련과 기준 외 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과정은 훈련의 내용·대상자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 구분한다.

현행 제도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대상·목적 및 재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취업훈련’,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무직·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실업자취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진학 청소년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위탁 교육훈련 기관

가. 위탁 직업과정 운영

(1). 위탁 교육의 근거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에 의한 제2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과목 단위 시간 기준에서 “고등학교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따라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예체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지도한다.”라고 명시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편제 및 과정상에 직업과정이 설치되어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었다. 이후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에 의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기준표에서 직업과정의 교과목 및 단위 이수를 명시하여 교육과정상의 직업과정을 명문화하였다.¹⁵⁾

1990년 1월 10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고교교육체제개혁’에는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계고 수용능력 확대 조치와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육성이 포함되어 운영되었고, 이후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 방안(Ⅱ) 중 ‘신직업교육체제수립’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운영되어 왔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 및 산업학교,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 그리고 각종 사설학원 및 인정직업 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¹⁶⁾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은 문교부 고시 제 90-1호('90. 1. 22) 『직업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15) 한국교육개발원(1992),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 운영 연구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분야

<표 3>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분야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종류			교육훈련분야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 훈련원 ·지방자치단체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원 및 직업 전문학교(노동부 지 원) ·직업·기술계학원 (도 교육청 수강료 지원 대상기관임)	·직업 과정 운영의 목적 달성에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훈련기관이나 단 체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1”의 직 업·기술계열 전 분 야

(3). 위탁교육훈련기관 선정

(가). 공공교육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공고부설, 공공직업훈련원)을 우선 선정한다.

(나). 직업·기술계학원(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의 위탁은 공공교육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공고부설, 공공직업훈련원)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코스를 우선 선정하여 위탁하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된 직업·기술계학원 중 교사의 자격, 시설,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학원을 선정 위탁한다.

※ 참고 : 직업·기술계학원은 노동부 고시 제2002-30호 및 노동부 예규 제487호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는 학원을 선정하되, 직업·기술계학원은 위탁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이 부실한 직업·기술계학원(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은 위탁교육의 해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탁교육훈련기관

- ① 교육청 산하 산업정보학교, 공고부설 직업과정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공공직업훈련원)
- ③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원(공공직업훈련원)
- ④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원)
- ⑤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훈련원 및 직업전문학교
- ⑥ 직업·기술계학원(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규칙 별표1의 직업·기술계학원으로 노동부 고시 제2002-30호 및 노동부 예규 제487호의 규정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학원)
- ⑦ 사내 직업훈련원(사내 직훈)

나. 우선선정직종훈련 기관의 종류

훈련시설은 실시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 훈련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을 말하며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 수출전략 직종, 첨단 및 신수요 직종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직업훈련기관은 개인, 법인, 사업주단체 등이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을 말한다.

현재 무직·비진학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우선선정직종 훈련을 실시하는 공공직업전문학교, 민간직업전문학교, 및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와 사설기관으로 기술계 학원 등이 있다.

이들 직업교육훈련생들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기숙사 시설도 제공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군입대가 연기된다. 또한 전체출석의 70%이상 출석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거쳐 기능사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기능대학 우선 전형 입시자격을 부여받는 특전을 가진다.

(1). 공공직업전문학교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8개소이다. 가원 흥천군에 소재한 가원인력개발원,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경기인력개발원,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천인력개발원,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충남인력개발원,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충북인력개발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인력개발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인력개발원,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전북인력개발원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상공회의소 산하 충남인력개발원이 있으며 비진학 청소년들이 이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2). 사업주단체 직업전문학교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사업주단체 및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5개소이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전기공사협회부설기관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한국계계산업진흥회부설기관과, 충북 음성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제조합부설기관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연수언부설기관이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이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상계 직업전문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사업주 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는 충남 병천에 소재한 기계공업진흥회산하에 있는 병천직업전문학교와 충북음성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제조합산하의 음성직업전문학교가 있다. 이곳들에서는 자체 수요 직종의 다능공 및 준 다능공을 양성한다.

(3). 민간직업전문학교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훈련법인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16개소이다.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중 대표적인 학교로는 호남직업전문학교가 있다. 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 고용촉진훈련 등을 하고 있다.

(4). 개인직업전문학교 / 사설학원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11개소이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신 직업전문학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직업전문학교, 대명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직업전문학교, 부산광역시에 부산정보직업전문학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문경직업전문학교,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최경희 패션디자인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다.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은 미용, 간호, 건축, 디자인, 자동차, 요리, 컴퓨터 등 다양하고 대부분 교육비가 유료지만,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과정인 경우 교육비가 무료이다.

다. 직업훈련영역

비진학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계 / 기술분야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등), 가스안전기술, 비파괴검사, 정밀기계, 기계제도,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가공, 금형, 열관리, 항공정비기술, 피아노조율, 도배 등의 다양한 과정들이 학원의 전문성에 따라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자격증취득과 관련을 맺고 있다.

(2). 컴퓨터 / 통신분야

사무장동화, 통신일반, 인터넷 등의 기본 시스템 운영체계를 교육하는 것과 아울러 컴퓨터그래픽, 웹 관리 등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3). 자동차분야

자동차정비, 자동차판금,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증장비 등의 관련 강좌들이 있으며 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차 및 각종 차량제조업체, 자동차정비업체의 조립 및 정비 부서, 운수회사 건설업체의 차량정비부서 등에 취업할 수 있다.

(4). 전기 / 전자분야

전기용접, 전자기기조립, 전자통신, 전기내선광사, 전기제어, 산업전자, 전자계산기, 시스템제어 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전기기기제조 및 설비업체, 전기공사업체,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5). 미용분야

미용분야는 크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미용사과정과 피부미용사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피부미용사는 피부관리사과정과 메이크업전문가과정이 있으며 최근 들어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발 관리사 과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6). 디자인 / 공예분야

패션디자인, 실내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 가구디자인, 편물, 자수, 꽃꽂이, 홈패션, 공예분야, 보석가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1년 과정의 기능사 교육을 받으면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7). 사진분야

사진기술, 비디오촬영기술, 촬영실기, 암실실기, 조명실기, 광고사진, 사진편집, 보도사진, 사진코디네이션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대학의 사진학과로 진학을 하거나 전문사진가로 취업하기도 한다.

(8). 정보처리분야

컴퓨터 등 OA관련 장비를 이용 일반사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문서의 작성, 보고, 전송, 보관업무와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용,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9). 요리 / 제과

한식·양식·일식조리사 자격증,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이외에도 소규모 음식 창업반, 패백이바지음식 등 보다 전문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10). 방송 / 매체 / 출판분야

출판인쇄, 취재편집, 방송제작, 애니메이션, 사진제판, 스크린 인쇄, 광고기획, 카피라이터, 광고영상제작, PD·플래너과정, 옥외광고전문가과정, 중견크리에이터 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방송인, 출판인, 광고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장.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의 방법 및 조사대상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들의 고민과 개선방안,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고, 문헌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인 면을 고찰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설문지 조사법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계 처리 하였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민간직업훈련기관인 (재)H직업전문학교 우선선정직종훈련 2007년 3월 2일 ~ 2008년 3월 1일까지 진행 중인 과정에 입학한 인문고 위탁생 19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율은 <표 4>과 같다.

<표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내 용	대 상	백분율(%)
설문지 배부 수	197	100
설문지 회수 수	180	91.4

3. 조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진로지도에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용 설문지 14문항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용 설문지 주요내용

- 기초자료 : 3문항
- 자기이해 : 8문항
- 직업교육 : 3문항

제4장. 결과 분석

제1절. 결과 분석

청소년기에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 시기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면서도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심지어는 고민이나 불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각자가 자기이해의 능력을 길러 자신의 개성 내지 특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개성을 파악하고 이를 신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막연한 고민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학생의 학력 수준

<표 5>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의 학습 능력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상위수준 (100~70%)	7	3.9
중위수준 (69~40%)	41	22.8
하위수준 (39~0%)	132	73.3
계	180	100

직업전문학교에 위탁 중인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능력이 상위수준인 학생들이 3.9%를 차지하고, 하위수준 이라고 답한 학생이 73.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생의 경우 학습능력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능력부족은 학습 장애와 달리 어떤 원인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 경우이므로 직업전문학

교는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의 가족사항

<표 6> 학생의 가족 사항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두 부모 가정	144	80.0
한 부모 가정	31	17.2
학생 가장	5	2.8
계	180	100

<표 6>를 통해 학생의 가족 사항을 살펴보면 80.0%가 부모님이 두분 모두 생존해 계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 부모 가정 17.2%, 학생가장 2.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하는데 부모님 생존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부모 가정의 학생이나 학생가장이 교사에게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바람직하게 성장을 시키는 데는 가정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없다. 왜냐하면 가정은 구성원들 간에 심리적, 공간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정이란 부모의 따뜻한 애정을 자녀에게 쏟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본받게 되는 특수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은 자녀들의 인격을 구축해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시켜 주는 사회화기관이며, 좋은 학교이고, 부모는 교사중의 교사이다. 여러 형태의 가족붕괴현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가정은 건강함과 안정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은 학생들의 위탁과정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민한 청소년의 정서에는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

이다.

3. 가정의 생활수준

<표 7> 가정의 생활수준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생활수준 : 상	11	6.1
생활수준 : 중	135	75.0
생활수준 : 하	34	18.9
계	180	100

<표 7>를 통해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생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6.1%이고, 중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75.0%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정적 요인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진로를 결정했다 후회하고 방황하는 사례들을 주위에서 자주 보아 왔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부모님이 학생에게 거는 기대

<표 8> 부모님이 학생에게 거는 기대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매우 큼	19	10.6
대체로 큰 편임	31	17.2
보통	73	40.5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57	31.7
계	180	100

<표 8>를 통해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를 살펴보면 매우 크다가 10.6%, 대체로 크다가 17.2%로 총 27.8%의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기대를 보통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7%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와 사회에서 받게 되는 교육의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부모는 집에서는 가정교사가 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후원자로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겠다.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간의 상호 교류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은 고독해 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5. 학생의 1일 흡연 정도

<표 9> 학생의 1일 흡연 정도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전혀 안 피움	46	25.6
5개피 정도	78	43.3
1갑 정도	35	19.4
1갑 이상	21	11.7
계	180	100

<표 9>에서 살펴보면 약 74.4%의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하루에 1갑 이상 피우는 골초들도 31.1%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담배는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중독성이 강한 약물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담배연기 속에는 4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4,000여 종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담배 1개피를 피울 경우 사람의 수명이 11분씩 단축되고 흡연자의 수명은 비 흡연자에 비해 10~12년 짧다. 한국금연운동연합회의 최진숙 사무국장은 "하루에 두 갑씩 20년을 피웠을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은 70배나 높아지고 암 외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각종 사망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¹⁷⁾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은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이 아직 완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흡연에 따른 손상 정도가 어른보다 더 심해진다. 일단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금연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흡연을 예방하는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7) 이명신(1999), 흡연과 건강

6. 가장 고민하는 문제

<표 10> 가장 고민하는 문제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이성 문제	24	13.3
진학 문제	128	71.1
취업 문제	19	10.6
가정 문제	5	2.8
병역 문제	4	2.2
기타	0	0
계	180	100

<표 10>를 살펴보면 직업학교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진학문제로 무려 7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업성적이 뒤져서 기능사 자격 취득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자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문제가 10.6%인 것은 가정의 생활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7. 이성 친구

<표 11> 교체중인 이성 친구 유무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56	31.4
없다	124	69.4
계	180	100

현대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방송(2000)에 따르면 전국 13~18세의 남녀 청소년 1,500명 중 25.5%의 청소년들이 현재 이성친구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여성심리학회(200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5% 이상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¹⁸⁾ 선행 연구 조사에 비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차 범위에 속해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성간의 교체에 있어 매우 관용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점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마 세계화와 미디어의 발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문화가 개방적인 외국과의 교류가 적었던 과거에는 우리만의 유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나라의 성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한 자아 존중감 증진, 자기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등의 기술습득과 요즘에 중요시되고 있는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할 것이다.

18) 한국여성심리학회(2000),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방향의 모색

8. 성 경험

<표 12> 성 경험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62	34.4
없다	118	65.6
계	180	100

<표 12-1> 성 경험 정도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포용	7	11.3
입맞춤	17	27.4
성관계	38	61.3
기타	0	0
계	62	100

위탁생들의 이성친구와의 성경험 여부와 신체접촉 정도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표 12-1>, 전체 응답자 중 성경험이 있는 비율은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제당시 신체접촉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포용 11.3%, 입맞춤 27.4%, 성관계 61.3%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한 위탁생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으나, 성경험이 있는 100명의 위탁생 중 21명 정도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본 결과는 우리나라도 서구의 성 개방 풍조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가 인정해야 하며, 학교나 사회의 성교육이 아직까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성교육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교육으로 변화하여야만 청소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자살 충동

<표 13> 자살 충동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28	15.6
없다	152	84.4
계	180	100

<표 13-1>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이성 문제	3	10.7
꾸중을 들을 때	6	21.4
놀림을 받을 때	10	35.8
성적 부진	6	21.4
가정 문제	3	10.7
기타	0	0
계	28	100

<표 13>에서 보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15.6%가 고등학교 재학 중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로는 놀림을 받을 때, 부모나 선생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성적이 부진 할 때, 이성 친구로부터 단절이나 실연을 당했을 때, 가정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자살 예방 상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차별적이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

호요소를 이해하고 상담 실체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10. 음주 정도

<표 14> 학생의 음주 정도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전혀 못 마심	26	14.4
소주 반병 정도	15	8.3
소주 1병 정도	86	47.8
소주 2병 정도	37	20.6
소주 2병 이상	16	8.9
계	180	100

<표 14>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5.6%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비율도 29.5%나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성인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시기의 음주경험이 그 사람의 음주유형을 결정짓는다는 점과, 다른 약물이나 금기사항으로의 진행을 보다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음주는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시급한 과제이다.

11. 본드나 가스 등 유해약물 흡입 유무

<표 15> 유해약물 흡입 유무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3	1.7
없다	177	98.3
계	180	100

<표 15>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약 1.7%의 학생이 본드나 가스등을 흡입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본드를 흡입 하게 되는 이유는 또래 집단의 유혹 내지 주변의 압력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 지어 볼 때 또래 집단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¹⁹⁾ 그 밖에 가족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게 된다. 부모와 일반 성인들은 약물을 금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또래 집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물남용을 장려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유해약물 흡입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본드 남용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사용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친구들이 남용하고 있으며 그들과 어울렸다는 것이다.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여 한번 시작한 사람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약물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스스로가 약물 남용의 증상이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청소년 스스로가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청소년 향정신성 유해약물 사용 현황과 관련요인 분석

12.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

<표 16> 직업전문학교 선택 동기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성적이 좋지 않아서	73	40.5
적응이 힘들어서	39	21.7
취업을 위해	30	16.7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23	12.8
주위 권유	15	8.3
계	180	100

직업전문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표 16>에서와 같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40.5%, 적응이 힘들어서 21.7%, 취업을 위해서 16.7%,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12.8%, 주위의 권유 8.3%로 나타났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와 적응이 힘들어서가 전체학생의 62.2%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위탁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대학진학 시에 특별전형 내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기 때문이다.

13.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현재의 느낌

<표 17>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현재의 느낌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아직 잘 모르겠다	30	16.6
지원을 잘 했다	140	77.8
후회하고 있다	7	3.9
포기하고 싶다	3	1.7
계	180	100

직업계열을 선택 후 현재의 느낌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4%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경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선 인간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런 경우 직업교육훈련이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 직업관을 확고히 다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진로 선택을 하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4. 직업전문학교에 학생이 기대하는 정도

<표 18> 직업전문학교에 학생이 기대하는 정도

내 용	응답자수	백분율(%)
많은 기대	129	71.7
약간 기대	15	8.3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7	3.9
잘 모르겠다	29	16.1
계	180	100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생들이 직업전문학교에 거는 기대를 살펴보면 80.0%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고도의 기술과 지적 수준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의 변화는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평생학습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개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돕기 위해 유연한 교육훈련 전달체계의 변화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의 현장의 하나인 직업전문학교는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 직업관을 확고히 다져 적성, 흥미, 인성, 능력들에 알맞은 진로 선택을 하여 장차 만족감을 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직업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의식을 조사하고 관련요인에 따라 직업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직업 진로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직업전문학교인 (재)H직업전문학교 19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과정에서는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규교육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적학교와 위탁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 및 진로지도 과정에서 직업과정 프로그램, 직업과정의 운영기관 및 전공학과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공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철저함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지도 및 1개월에 1회 이상의 진로지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학생들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열등의식에 쌓여 있고, 위탁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소속감 및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 학업우수상, 개근상, 모범상 등 포상제도, 학예활동, 기능 작품전, 학부모 참관일, 공개수업 등을 실시하고 기숙사, 식당, 매점, 화장실 등의 복지시설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직업과정이 지금보다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업과정 운영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평가는 교육훈련 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직업과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평가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직업과정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업인원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적인 면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직업과정 졸업생이 배출된다면 궁극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의 교육성과를 극대화시켜 학생 유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문교부(1975),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도서출판 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 이종복외 5인(1998), 현대 청소년복지론.
- 통계청(2006), 청소년통계.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 권이중(1983), 사회교육과 청소년 지도.
- 오치선(1999), 청소년 지도학.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복지론.
- 서울특별시교육청(2006), 2006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교재 진로교육 내실화·활성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의 회고와 전망.
- 노동부본부(2007), 2007년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결과.
- 한국교육개발원(1992),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 운영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이명신(1999), 흡연과 건강.
- 한국여성심리학회(2000),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방향의 모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청소년 향정신성 유해약물 사용 현황과 관련요인 분석.
-
- 김미라(2002),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 김근영(2001), 직업학교 위탁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 이문호(1991), 직업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혁(2005), 직업전문학교 재학 청소년의 직업교육 훈련 비효율성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들의 진로·직업선택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고 보다 나은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컴퓨터에 의해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절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나타낼만한 소속, 성명 등을 일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출된 설문지는 누구의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답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7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공요상 드림.

※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각 문항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만 선택하여 “V”표를 해주십시오.

1. 직업전문학교 이전단계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는?
①상위수준(100~70%) ②중위수준(69~40%) ③하위수준(39~0%)
2. 학생의 가족 사항은?
①두 부모 가정. ②한 부모 가정. ③학생가장.
3. 본인 가정의 생활수준은?
①상 ②중 ③하
4. 부모님이 학생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①매우 큼. ②대체로 큰 편임. ③보통. ④별로 기대하지 않음.
5. 학생의 1일 흡연 정도는?
①전혀 안 피움. ②5개피 정도. ③1갑 정도. ④1갑 이상.

6. 내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①이성문제. ②진학문제. ③취업문제. ④가정문제. ⑤병역문제 ⑥기타.

7. 학생은 현재 교재중인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8. 학생은 이성과의 성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8-1. 성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까지 입니까?

①손잡고 포옹하는 정도. ②입맞춤 까지. ③성관계 까지. ④기타.

9. 학생은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9-1. 자살 충동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이성친구와 단절.실연당했을 때. ②부모나 선생님께서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
③친구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 ④지속적으로 성적이 부진할 때.
⑤가정문제 때문에. ⑥기타.

10. 학생의 음주 정도는?

①전혀 못 마심. ②소주 반병 정도. ③소주 1병정도.
④소주 2병정도. ⑤소주 2병 이상.

11. 학생은 본드나 가스 등 유해약물을 흡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12.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①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②고등학교 적응이 힘들어서.
③취업을 위해서. ④자격증 취득 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⑤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13. 현재 재학 중인 훈련과정을 선택한 주요 동기는?

①적성일치. ②취업가능성이 높다. ③주위권유.
④훈련기간 일치. ⑤장래전망. ⑥기타

14. 직업전문학교에 학생이 기대하는 정도는?

①많은 기대가된다. ②약간 기대가된다.
③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④잘 모르겠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전기·전자·통신 교육진흥	학번	20048208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 공요상	한문 : 孔堯相	영문 : Kong Yo Sang		
주 소	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23				
연 락 처	E-MAIL : kongyosang@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students entrusted to vocational institut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서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 공 요 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